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 | | | | | | | | 성 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일반적 유의사항
1.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표지제외)입니다. 2. 문제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지 표지와 답안지 상단에 지원학부(과), 수험번호(10자리),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논제번호(예: Ⅰ, Ⅱ…)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합니다. 4. 답안지는 좌우 넘김입니다. 답안지의 위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5. 답안지는 모든 논제를 포함하여 반드시 최종 1장만 제출합니다. 고사 종료 1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불가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지정된 답안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7. 답안 정정 시에는 인문·체육/사회계 논제Ⅰ·Ⅱ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 자연/의·약학계, 사회계 논제Ⅲ는 두 줄을 긋고 정정·작성합니다. 8.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9. 답안은 한국어, 숫자, 수학 기호로 작성하며, 한국어 외 다른 언어, 특수문자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10. 검정색 필기구(흑색 연필 포함) 외 색깔 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위 내용 위반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사시간은 120분입니다. 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고사 중 지원자 전체를 영상 촬영합니다. 3. 휴대전화, 전자기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기타 통신기기 등은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지한 가방에 넣습니다. 가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고사실 앞이나 뒤 또는 양옆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후 위 물품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됩니다. 4. 고사 중 화장실 이용 시에는 감독관이 동행합니다. 휴대폰, 전자기기 소지 등 보안 점검을 위해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고사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5. 고사 종료 전 중도 퇴실은 불가합니다. 6. 종료령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7.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는 고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8. 고사 종료 후 퇴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을 챙겨 퇴실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가방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없도록 잘 확인 후 수험생 본인의 가방을 챙겨 퇴실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한 사람은 정장 차림으로 낮에 그림을 그렸고 다른 한 사람은 캐주얼 복장으로 밤에 작업했다. 한 사람은 여인을 단지 작품의 모델로 삼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모델과 사랑을 나누고 그를 통해 영감과 창작의 에너지를 얻었다. 20세기 전반 미술계의 최대의 라이벌인 앙리 마티스(1869-1954)와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달랐다.

마티스와 피카소의 기질적 차이는 판이한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됐다.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 르 카토 캉브레지 태생으로 북유럽 예술가 특유의 냉철한 지성을, 안달루시아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정열적인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을 타고났다. 마티스가 법률행정가로 일하다 우연히 병상에서 그림을 그린 게 계기가 돼 뒤늦게 화가로 전향한 데 비해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여 화가 외에는 다른 장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림에만 투신한 인물이다.

서로 다른 기질적 특징은 작품의 지향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티스는 작품이란 안락의자처럼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조화롭고 편안한 그림을 지향했다. 반면 피카소의 그림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감각적이고 에로틱하다.

[나]

저자의 의도를 감안한다고 해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듯이, 독자 개인의 반응이 곧 텍스트의 의미를 말해 주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독자는 텍스트 그 자체가 실제로 전달하는 것에 반응할 수도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느낌 또는 견해는 텍스트가 아닌 과거의 경험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연상 같은 것으로써 생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순전히 내 어머니에 대한 감정에 기대어 햄릿의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를 아예 등장인물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은 감정[영향]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도의 오류가 텍스트와 그 기원을 혼동하는 것이라면, 감정의 오류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끼친 영향, 즉 텍스트가 생산한 감정을 혼동하는 것이다. 감정의 오류는 인상비평(이를테면 독자가 어떤 등장인물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 그 인물은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만 한다)이나 상대주의(독자가 생각한 의미가 곧 텍스트의 의미가 된다)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평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면, 작품의 위상은 결국 정신 질환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심리투사 검사용 잉크 얼룩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의 형식 요소라고 불리는, 텍스트 자체의 언어로 제시된 증거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지, 상징, 인유, 각운, 시점, 배경, 인물 형상화, 구성 등과 같은 언어화된 증거들이 문학작품을 구성하거나 그것에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학작품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자기충족적인) 언어적 대상이다. 독자들과 읽기 행위는 달라질 수 있어도, 문학 텍스트는 동일하게 남는다. 텍스트의 의미는 책장마다 새겨진 글자만큼이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서, 서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며 배치된 낱말들, 즉 특수한 질서에 따라 배치된 특수한 낱말들로 이루어진다.

[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라]

<다음 면에 계속>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다. 말할 수 없이 따스한 빛과 공기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다고.

열두 살에 그 사진첩을 본 이후 품게 된 나의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에서,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허공의 길을 건너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동호가 어머니의 손을 힘껏 끌고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걸었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나는 그 망자들에게,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었다.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싶었기에,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곳이었던 상무관에서 첫 장면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열다섯 살의 소년 동호가 시신들 위로 흰 천을 덮고 촛불을 밝힌다. 파르스름한 심장 같은 불꽃의 중심을 응시한다.

이 소설의 한국어 제목은 '소년이 온다'이다.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된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1980년 5월의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소년이 온다』를 완성해 마침내 출간한 2014년 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느꼈다고 고백해온 고통이었다. 내가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말하는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생각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성을 믿고자 하기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기에, 그 사랑이 부서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어떤 고통은 사랑의 증거인 것일까?

[마]

어느 날 한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를 알 수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왕은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누구든 나에게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지,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아무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은자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중략…)

왕이 은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답은 이미 얻으셨습니다!"

은자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답을 얻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물었다.

"모르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제 제가 지쳤다는 걸 알아보지 못하여 고랑을 파주지 않고 그대로 떠나셨다면 저 사람이 전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전하는 이곳에 좀 더 머물지 않은 걸 후회하셨겠지요. 그러니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전하께서 저 대신 고랑을 파던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제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상처를 입은 남자가 이리로 달려온 후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전하께서 그를 보살펴 준 시간입니다. 전하께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지 않았더라면 전하와 화해하기 전에 죽었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전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전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중략…)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전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면에 계속>

[바]

요즈음 한두 젊은이들이 원나라나 명나라 때의 경박한 글들을 모방해서 글을 짓고는 스스로 뛰어난 문장가인 것처럼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성현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남의 글을 욕하곤 하는데, 내가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 반드시 처음에는 옛날의 경전을 공부하여 밑바탕을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보아야 한다.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에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공부를 하는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 뒤 더러 안개 낀 아침,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읊조리면 그것이 운율이 되고 시가 되는 것이다. 나보고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지 말거라.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이래로 한 가지 괴이한 논의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학 전통을 아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눈도 주지 않으려 하니 이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일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의논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저 엉터리가 될 뿐이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중국의 진나라·한나라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천 리 떨어진 우리 조선에서 공자·맹자 시대의 옛 예(禮)를 다시 파악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효(孝)와 제(悌)는 공자와 맹자의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근본이 확립되어야 학문이 넉넉해진다. 효와 제를 근본으로 삼고 여기에 예악과 형벌, 병법 등을 가르쳐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해야 한다.

[사]

자, 한번 따져나 보세. 옛날로 말미암아 지금 것을 본다면 지금 것이 보잘것없기야 하지. 그렇지만 그 옛날도 당시에는 또 하나의 지금이었을 뿐이라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보잘것없는 지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세월은 쉼 없이 흘러가 버리고, 노래도 변하고 문장도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나 취향도 자꾸 바뀌게 마련일세. 오늘 아침에 역사의 무대 위에서 술 마시며 즐겁게 노닐던 자들도 저녁이 되면 그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럴진대 진정한 의미의 옛날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보세. 지금 우리가 옛날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그때의 지금이었을 뿐이라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먼 훗날까지도 옛날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보다 앞선 옛날, 박제화된 그때 거기를 맹목적으로 추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백번 옳지 않겠나? 그래야만 나의 지금은 또 훗날의 옛날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간단한 이치건만,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 안타깝단 말일세.

자네는 무관(懋官)의 시를 두고 옛날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으니, 이것은 지금에 끝날 뿐 결코 옛날은 될 수 없다고 했지? 지금이란 것이 무언가? 옛날과 상대하여 하는 말일세. 비슷하다는 것은 무언가? 저것과 이것을 견주어 하는 말일세. 지금이 없고서야 옛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눈에 저것이 좋게 보인다 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버려두고 저것만 뒤쫓다 보면 결국 저것도 될 수 없고 이것마저 잃게 되고 말 걸세. 생각해 보게. 이웃 사람의 담비 갖옷이 보기에 좋다고 하여 한여름에 그것을 빌려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따뜻하기는커녕 온몸에 땀띠만 날 것이 아닌가? 옛사람의 글이 제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읽는 이에게 공연한 괴로움만 안겨줄 뿐이라네.

[논제 Ⅰ] [가]와 [나]의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Ⅱ]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끝>